

혁신교육의 미래 제언을 듣는다

전북교육청, 도민과 혁신미래학교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오후 3시 도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2018 혁신미래학교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2018 혁신미래학교 연구보고회는 혁신미래학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혁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혁신교육의 과거, 현재를 통한 혁신미래학교 담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전주교대 박승배 교수의 진행으로 ▲이동성(전주교대)·강은숙(전주오송초)의 '혁신미래학교 정책연구 보

고' ▲정민수(전주문하초)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예시 모델' ▲최준호(전주영생고)의 '교육과정 운영 중등학교 예시 모델' 발표와 함께 ▲박일관(나포중)·정태식(이리북초)·이은미(이리동산초)의 혁신미래학교 제언이 이어진다.

연구보고회를 마친 후 향후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혁신미래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결과

를 분석해 혁신미래학교 구현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9년 1월 중 혁신미래학교 준비 학교의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연구 공유를 통해 함께 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담론 형성으로 혁신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 송풍초, 용담중학교가 지난 24일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주대,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 대학 선정

1억 1500만원 확보... 1년 동안 사회적경제 융합전공과정 운영

전주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 사업'에서 '신규 확산형 대학'으로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대학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하도록 돕고,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3년부터 매년 3~4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전국에서 4개 대학을 선발했다.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전주대는 1억 1500만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2019년 3월부터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관련 학부 전공과 결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후 융합전공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학원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1년 3학기제, 전체 9학점 이수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사회적경제 이론과 비즈니스모델', 전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및 지역혁신 활동현장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소셜벤처 현장실습 등으로 지역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키워내게 된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전주대는 전라북도와 전북의 도시재생, 공유경제, 자활, 공정무역 분야의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과 혁신기관 등과 교육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민·관·학이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플랫폼으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



전주대학교 전경.

망이다.

전주대 한동승 교수는 "지역사회에 산재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에 많은 활동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 동안의 리빙랩 및 소셜 벤처 교육 및 창업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리더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손에서 손으로 추위 녹이는 온기 나눠요'

진안 송풍초·용담중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진안 송풍초, 용담중학교(교장 이미숙)는 지난 24일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미숙 교장은 "연탄 나눔 자원봉사 이날 봉사활동은 '진안군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한 가구당 150장의 연탄이 제공됐다.

학생들 및 교직원들은 우비와 장갑을 착용한 후 일렬로 서서 어르신 집 안에 차곡차곡 연탄을 넣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연탄은 추운 날씨에도 온기를 전해 줬다.

이미숙 교장은 "연탄 나눔 자원봉사에 초등학교 교직원과 중학교 전교생,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학생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 이은유 국가대표 선발

러시아 카잔에서 실시되는 2019년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이은유(전북기계공고 2018년 2월 졸업)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015년 고1 때 전북기계공고 기술영재반 훈련 시작해 2016년 고2 때 전북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서울)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7년 고3 때 전북기능경기대회 금메달, 동년 전남에서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각각 수상했다. 2018년 삼성전자 입사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국가대표 선발전(총4명) 2017년 금(1위), 은(2위), 2018년 금(1위), 은(2위) 4명이 2회에 걸쳐 선발전을 치르고 2회 합산 최고 점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 자격을 얻게 돼 종합1위로 선발됐다.

이은유(삼성전자) 선수는 2013년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폴리메카닉스 직종에서 국가대표(이승준-은메달획득)에 이어 6년만에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됐다. /장은성 기자



왼쪽부터 이민희 교수(학생복지처장), 이유엽 교수(교무혁신처장), 가운데 유화수 교수(교양과), 강희성 총장, 서유석 부총장, 이만중 교수(기획처장).

호원대 교양과 유화수 교수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6일 총장실에서 교양과 유화수 교수가 1,000만원을 기탁해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서유석 부총장 및 이유엽 교무처장, 이만중 교무처장, 이민희 학생복지처장 등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및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유화수 교수(교양과)는 "호원대 교수로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보낸 시간이었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호원대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강희성 총장은 "유화수 교수께서 그동안 학교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주신 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교수님께서 기탁해주신 소중한 이 기금은 앞으로 대학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성원 위한 행정 적극 협력"

전북대 17대 교수회장에 이창현 교수 당선

전북대학교 이창현 교수(농생대 산림환경과학과)가 제17대 전북대 교수회를 이끌게 됐다.



전북대 교수회는 최근 2명의 교수가 임후보한 가운데 1,0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서면 투표를 통해 유효 투표 수 762표 중 385표를 얻은 이창현 교수가 당선됐다. 26일 밝혔다.

또한 단독으로 임후보한 수석 부회장에 소은선 교수(간호대 간호학과)가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 당선됐고, 부회장에 이인재 교수와 감사에 김은미 교수도 당선돼 17대 교수회를 이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창현 신임 교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2년 동안 임기를 수

행한다.

이창현 신임 교수 회장은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교수들의 결속 강화로 강력한 교수회가 되어 대학본부가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호히 견제하며, 구성원을 위한 행정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단과대학장의 직선제 선출, 대학평의회 설치, 교수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현 신임 교수회장은 전북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산림휴양복지회 회장, 산림청 정책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과학기술단체 전북지역연합회 부회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사업단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 유아숲지도사양성사업단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